‘불교의 기본’ 다지는 책 만들기 매진

정우서적

불서를 만드는 사람들

책을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출판사를 차리겠다”는 말을 달고 다니던 소년이 있었다. 소년이 나이를 먹게 되면서 그 꿈은 그대로 묻혀버리는가 싶었다. 그러나 잠시 접혀 있던 그의 꿈은 블교계 안에서 펼쳐졌다. 좋은 불서를 만들어내겠다는 서원으로 단단하게 다져진 ‘정우서적’을 세우면서부터다.

햇살이 맑은 3월 10일, 서울 종로 한 건물에 위치한 정우서적을 찾았다. 정확히는 정우서적 이성운 사장을 찾았다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불교 출판사를 시작하게 됐는지가 궁금해 이야기를 꺼냈다. 이 사장은 1992년부터 공직생활을 접고 출판사를 시작했다며 간단하게 “뜻이 있고 하고 싶어서”라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서’라는 단어의 정체성이 뭐라 생각하냐고 되물었다. 이 사장이 진정으로 하고 싶던 말이 시작된 셈이다.

“불서란 과연 종교의 하위개념인지, 불교적인 내용만 들어가면 되는 것인지, 불자가 아닌 사람이 출판해도 되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불서는 불교를 담은 책이죠. 불교인에 의해, 불교의 가치와 이념을 드러내야 불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론적이지만 그만큼 신선하기도 했다. 요즘처럼 변주가 환영받는 세상에서는 오히려 원론을 지키는 것이 특이하니 말이다.

이 사장이 만들어낸 정우서적 책들을 살펴봤다. <의식 및 불자신행서><국한문대역경서><사경시리즈><경전시리즈> 등 ‘정통파’ 불교서적과 이론교양서적으로 나눠져 있다. 이 사장이 의식 · 의례집을 상당히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뜻밖이다. 규모가 작은 출판사는 어떻게든 일반 독자에게까지 ‘어필’할 수 있는 책 출판에 신경 쓰기 마련인데 정공법을 택한 것이다.

이런 도서를 주로 만들어내는 이 사장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문득 궁금해졌다. 생활적인 답변이 나올 것이라 기대했으나 이 사장은 ‘언어’문제를 들고 나왔다. 번역도 번역이지만 이 사장이 더욱 크게 문제 삼는 것은 ‘우리 말’ 자체다.

“우리말로 옮겨 놓아도 이해가 안 되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말 문법에 맞게 정확한 문장을 쓰면 불서 어렵다고 안 읽을 사람은 적어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 사장이 딱딱한 사람이냐면 그렇지 않다. 그는 문학을 사랑하고 한시도 즐겨 쓴다.

“불교에 얼마나 아름다운 구절이 많은데요. 게송을 하나 보아도 문학적이지요. 게다가 초기 경전에는 또 얼마나 많은 비유가 내재해 있습니까.”

이런 그의 생각은 이 사장이 운영하는 ‘정우피아’ 블로그(blog.naver.com/jabidj)에서 더욱 자세히 볼 수 있다. 여기에는 그의 출판 신념, 새 책에 대한 꼼꼼한 리뷰는 물론 신행이야기, 습작 시들까지 다양하게 꾸몄다. 마치 사랑방 같은 분위기다.

다시 이 사장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현재 불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느냐고. 지금 불서 시장의 불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이냐고.

“불교출판인들이 책을 통해 불교의 가치를 개발하고 다양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척 현실적이고 현세적입니다. 불교도 시대에 맞춰가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하면 불교출판계도 살아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태성 교수와 범어(梵語)를 다시 보는 <범어실담입문>을, 김호성 교수와는 <불교, 소설과 영화를 말하다>를 출간 준비 중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새로 쓰기 경전 운동’도 계속하고 있다. 현학적 해석은 지양하고 원형을 최대한 유지시킨다는 것이 그의 결심이다. <법화경>을 비롯한 10권의 경전이 이런 과정을 거쳐 나올 예정이다. 독송 위주의 경전에서 탈피해 온전히 뜻을 안길 수 있는 경전을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다.

> “불교의 가치 개발해 다양하게 드러내야
> 누구나 읽고 싶어하고 가치있는 책이 목표”

이 사장은 정말 열심히 고민하고 끊임없이 회의하는 전문인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공부도 한다. 현재 동국대 불교학과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이 사장은 불서 만드는 그 자체에 자부심을 갖고 산다. 출판 시장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그에게 걸림이 아니다.

철학이 없고 불교적 가치가 없는 출판물은 불서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는 이성언 사장. 그러나 그와 이야기하다 보면 현실적이면서도 순수한 열정, 그리고 확고한 신념을 가진 출판인의 자부심이 느껴진다. 그러다보면 슬그머니, 이 사장의 그 ‘고집’을 편들고 싶어진다.

글 · 사진=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내 인생의 불서 한 권

눈먼 거북이가 천년 만에(초발심자경문)
원순 역해|도서출판 답게|2004년

부산 금정중학교 이석언 교법사

“처음 먹은 마음대로 살자”

이 원고를 쓰며 반성부터 해본다. 불서를 많이 읽어야 불자인데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책을 많이 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나부터 불서를 열심히 읽겠다 다짐하며 읽은 불서 중 감명 깊었던 책 한 권을 소개하고자 한다.

<초발심자경문>은 불문에 처음 든 스님들이 학습하는 교재이며 기본으로 배우는 지침서다. 그러나 정독해보면 일반 불자들이 읽어도 스님 못지않게 혜안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무궁무진하다. 처음 불교에 입문한 사미 · 사미니들이 수도기간 동안 익혀야 할 간단한 계와 언행, 어른 앞에서 하는 몸가짐, 식사하고 잠자는 일 등에 관한 교육, 그리고 발심 · 경책 등을 돈독히 하는 글을 모아놓았는데 우리 일반 불자들이 세간에서 실천하며 마음에 새길만한 유용한 말씀들이 많다.

불교학생회 활동 때 책 접해
수행에 필요한 마음가짐 배워

내용을 살펴보면 ‘계초심학인문’은 지눌 스님이 조계산에서 수선사를 창건하면서 새로운 선풍(禪風)을 일으켰을 때 저술 한 것이다. 자세히 읽어보면 불교의 삼학(三學)인 계정혜(戒定慧)를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 조금 안다고 자만하는 사람들에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경구가 아닌가 싶다.

‘발심수행장’은 원효 스님이 자신의 수행 체험을 바탕으로 저술한 것으로 수행에 필요한 마음가짐이 주 내용이다. 특히 ‘부서진 수레는 짐을 실을 수 없고 늙은 몸은 닦을 수 없는 것이니 발심수행이 급하고 급하다’고 한 구절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면서 “인생은 덧없다.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구절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자경문’은 고려 후기 야운(野雲) 스님이 스스로를 반성하기 위해 쓴 책이지만 수행하는 스님들을 경책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자경이란 신삼(身三), 구사(口四), 의삼(意三)이라 하여 몸으로는 살생 · 도둑질 · 간음을, 입으로는 거짓말 · 독설 · 이간질 · 모략중상을, 뜻으로는 탐냄 · 시기 · 질투 · 분노 · 그릇된 주장 등을 한 자신을 참회하고, 깨닫는 그날까지 잘못된 모든 행위를 돌이켜 자비한 마음으로 뭇 생명을 사랑하고 베풀어 주며, 깨끗한 행을 닦고 마음을 살펴 몸과 입과 뜻을 항상 경계하는 것이다.

처음 이 <초발심자경문>을 접한 것은 경주에서 불교학생회 활동을 하던 무렵이었다. 이를 통해 불교가 자신을 닦는데 참 좋은 종교임을 느끼게 된 것은 물론 이후 나의 삶에도 큰 지침이 되었다. 1980년대 군사정권 때 대학에서 방송언론을 할 때나 1990년대 이후 종립학교 교사로, 교법사로 불자들을 육성하면서나 초심을 잊어본 적이 없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바로 이 <초발심자경문> 덕이 아닌가 생각한다.

항상 처음 먹은 마음대로 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다. 하지만 부지런히 노력하고 정진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이제 모두가 초심의 마음불자로서 바른 신심을 내고, 정법으로 돌아가기 위해 <초발심자경문>을 다시 읽어 봄이 어떨까.

많은 스님이나 불교학자들이 이 책을 역해하고 있지만 2004년 송광사 원순 스님이 쓰신 <눈먼 거북이가 천년 만에>는 제목 자체가 <열반경>에 나오는 ‘맹구우목(盲龜遇木)’에서 따온 말로, ‘큰 바다에 사는 눈먼 거북이가 삼천년에 한번 물 위로 올라와 숨을 쉬고 들러 가는데 이때 바다 위에 떠있는 나무를 만나기는 무척 어려운 일이듯 불법을 만나기도 참으로 어려운데 이제 만났으니 한번 신명나게 공부해보자’는 의미가 들어있다.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범음,범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단기속성 3개월 과정**(제32기)

1. 교육안내
- ○ 개강일자 : 2008년 4월 7일 (월) 오후 3시(목탁 지참)
-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 통신교육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테이프 우송)

2. 교육내용

①송 주 편(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예 경 편(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헌 공 편(삼보통청, 중단퇴공, 불공시식, 관음, 지장, 신중청 등)
④재의식편(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방생의식 등)
⑤시 식 편(관음시식, 화엄시식, 구병시식 등)

3. 교육기간 : 단기속성 3개월 과정

4. 신청방법 : 전화접수(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사진, 등본)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적으로 지도함
· 중요한 부분은 범음, 범패를 병용해서 지도함
·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지도함

한국불교법사대학
불교의식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 (한선빌딩 3층)
☎ 02)720-1836, 733-1959

필름

당뇨,혈압등 성인병에 좋은 첫서리 맞은 뽕잎차

첫서리 맞은 뽕잎차는 겨울의 길목에서 청정한 산속에 들어가 첫서리 맞은 싱싱한 뽕나무잎을 따서 곱게 썰어 찌고 그늘에 말리기를 9번을 하여 맛을 낸 것입니다. 뽕잎차는 야생 뽕나무로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야생 뽕나무는 비료나 퇴비를 멀리하니 맛이 자극적이지 않고 깊고 그윽합니다. 겨울의 문턱에서 산삼 뿌리와도 같은 첫서리 맞은 뽕잎차는 땅속과 우주의 기운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생명을 담은 차입니다.

뽕나무는 **신선목**이라 하기도 하고 뽕잎은 향방명으로 **신선엽(神仙葉)**이라 합니다.
신선엽(神仙葉)은 뽕잎을 장복하면 신선이 된다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첫서리 맞은 뽕잎차는 감기에도 도움이 되는데 꾸준히 음용하면 감기에 대한 면역력이 강해지고 기침, 가래를 내리고 몸의 붓기를 가라앉히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당뇨는 며칠만 마셔도 변화가 나타나며 혈압을 떨어뜨리며 혈당을 강하시키고 강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희 **발심차(첫서리 맞은 뽕잎차)**는 한번만 마셔도 금방 느낄 수 있는데, 제일 먼저는 오줌이 많아지고, 자주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차의 고소한 뒷맛은 오래도록 기분을 상큼하게 합니다. 우선 맛이 좋고, 나중에 다시 먹고 싶은 생각이 날 정도로 아주 맛과 향이 뛰어난 차입니다. 몸에 좋은 차는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선원에 수행하시는 스님들이나 주지스님, 일반 신도님들께서 몸이 냉하거나 당뇨,체질순환이 잘 안되시는 경우 장복하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오장 육부가 좋아지는 등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첫서리 맞은 뽕잎차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들에게 건강 인사를 하시는데도 정성 가득한 선물이 되실 것입니다.
스님께서 수제로 정성드려 만든 뽕잎차는 금강선원의 선원불사와 법당불사에 회향을 하오니 신심 있으신 신도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 **초심차(初心茶)**
뽕잎을 쪄서 말리고 또 찌고 말리고를 아홉번. 이것이 구증구포 바로 금강선원의 초심차 입니다.
선원주변에 맑은 공기와 기름진 토양에서 자라난 뽕나무로 부터 채취된 뽕잎을 재료로 하고 있어 무기질이 풍부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뽕잎을 씻고 찌는 물은 청정한 맥반석 지하수를 다시 한번 자화육각수로 정화하여 사용하므로 차를 우려냈을 때 더 깊은 맛과 깨끗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 **발심차(發心茶) 첫 서리맞은 뽕잎차**
11월초에 첫 서리맞은 뽕잎을 채취하여 발심차(첫서리 맞은 뽕잎차)가 나오기까지 2달 가까이 걸립니다.
첫서리 맞은 뽕잎차는 겨울의 길목에서 청정한 산속에 들어가 첫서리 맞은 싱싱한 뽕나무잎을 따서 곱게 썰어 찌고 그늘에 말리기를 9번을 하여 맛을 낸 것입니다. 특히 첫서리 맞은 뽕잎차는 감기에 대한 면역력이 강해지고 혈압을 떨어뜨려 혈당을 강하시키고 강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www.ggzen.or.kr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금 강 선 원
구입문의 : 055)931-9590
계좌번호-농협 843162-55-000050 금강선원